

	박형준 / 2월 / 도약GS / 6회									
반구분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실강+실영상반	513526	18	13	22	16	69	1	2.56%	6	39
실강+실영상반	509127	18	14	22	14	68	2	5.13%	5	
실강+실영상반	513607	19	15	18	15	67	3	7.69%	7	
실강+실영상반	509117	19	13	17	15	64	4	10.26%	6	
실강+실영상반	513808	17	12	19	14	62	5	12.82%	5	
실강+실영상반	509387	18	12	14	18	62	5	12.82%	5	
실강+실영상반	513476	18	13	17	14	62	5	12.82%	5	
실강+실영상반	513456	17	12	19	13	61	8	20.51%	3	
실강+실영상반	513440	17	10	21	13	61	8	20.51%	4	
실강+실영상반	509120	17	12	18	14	61	8	20.51%	6	
실강+실영상반	513503	15	9	21	15	60	11	28.21%	5	
실강+실영상반	509122	16	12	20	11	59	12	30.77%	5	
실강+실영상반	508888	16	13	18	12	59	12	30.77%	5	
실강+실영상반	513843	16	13	16	13	58	14	35.90%	5	
실강+실영상반	513620	17	9	18	13	57	15	38.46%	6	
실강+실영상반	509153	18	10	16	13	57	15	38.46%	4	
실강+실영상반	513435	11	13	18	14	56	17	43.59%	5	
실강+실영상반	513769	14	13	13	16	56	17	43.59%	4	
실강+실영상반	513701	16	12	14	14	56	17	43.59%	4	
실강+실영상반	513684	17	12	16	10	55	20	51.28%	4	
실강+실영상반	513617	18	11	13	13	55	20	51.28%	5	
실강+실영상반	513494	13	9	18	15	55	20	51.28%	5	
실강+실영상반	514023	19	14	9	12	54	23	58.97%	5	
실강+실영상반	509171	17	13	11	13	54	23	58.97%	5	
실강+실영상반	513434	18	13	13	9	53	25	64.10%	6	
실강+실영상반	513540	16	11	14	12	53	25	64.10%	4	
실강+실영상반	513448	17	12	13	10	52	27	69.23%	4	
실강+실영상반	513630	15	8	17	12	52	27	69.23%	5	
실강+실영상반	509377	14	9	17	11	51	29	74.36%	5	
실강+실영상반	513481	17	13	21	0	51	29	74.36%	5	
실강+실영상반	513439	13	12	13	12	50	31	79.49%	5	
실강+실영상반	513719	12	9	13	14	48	32	82.05%	5	
실강+실영상반	513748	16	10	10	12	48	32	82.05%	3	
실강+실영상반	513615	16	13	11	8	48	32	82.05%	3	
실강+실영상반	513438	15	12	9	10	46	35	89.74%	5	
실강+실영상반	508885	14	9	18	0	41	36	92.31%	4	
실강+실영상반	513802	0	10	19	10	39	37	94.87%	5	
실강+실영상반	513602	11	9	7	9	36	38	97.44%	5	
실강+실영상반	514042	5	3	6	4	18	39	100.00%	5	
실강+실영상반	509152	0	0	0	0	0	40	102.56%	#DIV/0!	
실강+실영상반	508482	0	0	0	0	0	40	102.56%	#DIV/0!	
실강+실영상반	513436	0	0	0	0	0	40	102.56%	#DIV/0!	
실강+실영상반	514005	0	0	0	0	0	40	102.56%	#DIV/0!	
실강+실영상반	513445	0	0	0	0	0	40	102.56%	#DIV/0!	
실강+실영상반	508900	0	0	0	0	0	40	102.56%	#DIV/0!	
실강+실영상반	508915	0	0	0	0	0	40	102.56%	#DIV/0!	
실강+실영상반	508961	0	0	0	0	0	40	102.56%	#DIV/0!	
실강+실영상반	508992	0	0	0	0	0	40	102.56%	#DIV/0!	
실강+실영상반	509058	0	0	0	0	0	40	102.56%	#DIV/0!	
실강+실영상반	509107	0	0	0	0	0	40	102.56%	#DIV/0!	
실강+실영상반	509123	0	0	0	0	0	40	102.56%	#DIV/0!	
실강+실영상반	509146	0	0	0	0	0	40	102.56%	#DIV/0!	
실강+실영상반	509767	0	0	0	0	0	40	102.56%	#DIV/0!	
실강+실영상반	510838	0	0	0	0	0	40	102.56%	#DIV/0!	

<b>박형준/2월/도약GS/6회/1번</b>	<b>채점자</b>
	<b>김시연</b>
<div data-bbox="204 463 454 501" data-label="Section-Header"> <h2>1. 전반적인 총평</h2> </div> <div data-bbox="204 555 1390 763" data-label="Text"> <p>무효심판, 정정심판,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였습니다. 심판/소송 파트가 아무래도 책 뒷부분에 위치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제대로 대비를 아직 못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분량을 제대로 채우지 못 하신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해당 파트는 여러 가지 논점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각 상황 별 법원의 처리 원칙을 꼭 정리해서 암기해 주세요.</p> </div> <div data-bbox="204 862 660 900" data-label="Section-Header"> <h2>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h2> </div> <div data-bbox="236 954 400 992" data-label="Section-Header"> <h3>(1) 설문 1</h3> </div> <div data-bbox="204 1046 1390 1124" data-label="Text"> <p>동시계속 가부와 처리방법이 주요 논점입니다. 정정심판이 먼저 청구된 경우에만 동시계속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써주세요.</p> </div> <div data-bbox="236 1178 442 1216" data-label="Section-Header"> <h3>(2) 설문 2, 3</h3> </div> <div data-bbox="204 1270 1390 1393" data-label="Text"> <p>관련 판례를 적절하게 4점, 7점 분량으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배점이 작다고 너무 적게 기재해주시면 다른 수험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점이 소중한 시험인 만큼, 배점 분량은 꼭 지켜주세요.</p> </div> <div data-bbox="236 1447 400 1485" data-label="Section-Header"> <h3>(3) 설문 4</h3> </div> <div data-bbox="204 1538 1390 1617" data-label="Text"> <p>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이고,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p> </div> <div data-bbox="204 1671 1390 1749" data-label="Text"> <p>정정심결의 재심사유에 대한 전합 판례는 몇 년 전부터 a급 논점이었으므로 꼭 꼼꼼하게 암기해주세요.</p> </div> <div data-bbox="236 1803 400 1841" data-label="Section-Header"> <h3>(4) 설문 5</h3> </div> <div data-bbox="204 1895 1390 1973" data-label="Text"> <p>무효로 인해, 정정 청구할 대상이 없어지므로, 청구 이익이 없어 '소 각하'된다는 결론을 내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들 잘 기재해주셨습니다.</p> </div>	

### 3. 소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써주시지 못하였습니다. 주요 논점에 관하여 대략적인 결론은 알고 계시지만, 세부적인 판례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분량을 채우지 못 하신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심판 파트에 관한 문제는 사안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몇 년 전부터 a급 논점이었습니다. 변리사 시험의 특성 상 최근에 출제된 논점일지라도 바로 다음 해에 똑같이 출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논점은, 항상 꼭 제대로 정리하고 암기해 주세요.

<p><b>박형준/2월/도약GS/6회/2번</b></p>	<p><b>채점자</b></p>
	<p><b>김시연</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문언 그대로의 이용침해가 아니라 균등범위에서의 이용침해라는 점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b>(1) 설문 1</b></p> <p>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이 논점을 놓치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셨습니다. 간단한 법리이니, 놓치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p> <p>이 사안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① 권리 대 권리 심판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② 예외적으로 이용침해일 경우는 가능하다는 점과 ③ 해당 사안은 균등범위에서의 이용침해라는 점입니다.</p> <p>따라서 이 3가지 논점을 캐치하였다는 점을 답안지에서 어필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논점에 대하여 (1) 원칙, (2) 예외, (3) 균등 이용 여부 등으로 목차를 따로 빼주어서 답안지에서 이 3가지 논점이 확 드러나게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p> <p><b>(2) 설문 2</b></p> <p>전합 판례를 써주시고 결론 내려주시면 됩니다. 결론에서 인용심결만 적어주신 분도 있고, 기각심결 예상까지 적어주신 분도 있는데, 논리적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둘 다 점수 부여하였습니다.</p>	

### 3. 소결

이번 회차 1,2번 문제는 심판/소송파트와 관련된 총론과 같은 문제들로만 구성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 분들이 책의 앞부분을 가장 열심히 공부하시고, 점점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져 심판/소송 파트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저도 수험생일 때 특허의 정정심판, 정정청구 파트를 공부하다가 집중력도 떨어지고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속이 울렁거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대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두고두고 무기처럼 쓰실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준/2월/도약GS/6회/3번	채점자
	강경민
<p><b>1. 문제 3</b></p> <p>일사부재리 동일증거, 동일사실을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판례를 정확하게 서술하신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의미는 통하더라도 판례문구를 키워드라도 정확히 살려서 서술해주신 경우 채점 경험 상 답안 인상이 훨씬 좋아지고 이는 곧 실제 시험에서도 점수와 직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본격 GS시즌 시작 전이니 암기 정확도를 높이는데 신경써주세요.</p> <p>또한 일사부재리는 심판 청구의 적법성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본안 판단과 나누어서 작성해주신 경우 답안 인상이 좋았으니 참고해주세요.</p>	
박형준/2월/도약GS/6회/4번	채점자
	강경민
<p><b>2. 문제 4</b></p> <p>A급 논점인 만큼 대부분 결론까지 잘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판례의 정확도와 사안포섭의 정밀도 및 논리성을 높여 다른 답안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 <p>설문 1의 경우, 판례는 실시권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무효심판 청구의 이해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포섭 시 3% 실시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주신 경우 점수를 더 드렸습니다.</p> <p>설문 2의 경우 판례의 결론 뿐만 아니라 논거를 얼마나 잘 작성해주셨는지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습니다.</p>	

## [문제-1]

## I. 선행(1)

## 1. 무효심판 및 재심판 인의 및 취지

## (1) 무효심판 - 제133조

이해관계인·실사관료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음은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부수적지 방식을 위함이다.

## (2) 정정심판 - 제136조

특허권자는 재사관료장을 위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주요면에 대해 재심판 청구할 수 있다.

## 2. 동시계속 가보

① 정정심판 계속 중 무효심판 청구하는 경우,

② 무효심판의 심판후소송 계속 중 정정심판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계속이 가능하다.

## 3. 동시계속 시 심판원의 심판 방법 - 제141조

①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이 동시 계속 중이라면, 정정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판단 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②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판단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③ 무효심판을 먼저 심리·판단 하는 경우 심판대상은 재심 전 특허발명이고, ④ 무효심판의 심판후소송이 특허법원 계속 중이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 4. 선행의 해법



목적실질이나 거래실질이 신의유지에 동시계속 중이냐면,  
실패원은 ~~비판적~~하게는 거래실질을 먼저 실패하여야  
한다.

## II. 성문(2).

### 1. 관련 취제.

① 목적실질에 대한 실패취소소송이 특허법원 계속 중  
정정실패를 제정할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적절  
한 정정의 기회는 부여하여야 하고, ② 이 경우  
정정 후 목적사유가 해소되는지 등의 여러 사항을 종합  
하여, 변을 ~~판결~~ <sup>중단</sup>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성문의 경우.

① 법원은 특허권자의 정정실패으로 인해 목적사유 해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  
하는 경우. 정정실패 결하는 기다릴 수 있지만,  
② 반드시 결하는 기다릴 후 실패 판단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III. 성문(3).

### 1. 관련 취제

#### (1) 관련 취제.

① 목적실질에 대한 실패취소소송이 특허법원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될 경우, 심결은 유효하나,

② 법원은 정정된 발명을 기준으로 삼기. 판단하면 된다.

(2) 회색 방조

정정심결 재심사유 관련 사항에서 ① 이 경우 심판대상을  
갖췄 특정한 위험이 있지는, ② 정정된 발명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표시한 바 있다.

(3) 검토.

정정심결이 확정될 경우 특허발명은 처음으로 기재된  
기술로 심판대상 등 될 것이므로 (제136조 10항)  
회색의 처리는 하등하다.

2. 심판의 해결

법원은 이 경우 정정된 발명을 기준으로 무효심판에  
대한 심판숙의소송을 처리하여야 한다.

IV. 결론(4)

1. 문제점.

<sup>인 대법원</sup>  
무효심판에 대한 심판숙의소송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소송법 451조 1항 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거나 심판대상이 유제된다.

2. 재심사유 조부

(1) 중재 회색.

중재회는 이 경우, 민사소송법 451조 1항 8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본배로 다시 발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 (2) 진해 위해 다수의견

- ① 특허심판은 판결의 기효나 쥔 사상이 아니고,
- ② 정정신청의 취지에 의해 특허발명이 특허권·실용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③ 분쟁지연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451조 (항 8)의 재심사유를 구제하지 않는다고 한다.

## (3) 진해 위해 별개의견

- ① 제136조 10항 명문의 취지, ② 특허권자의 방어권 박탈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4) 결론

정정신청이 항재되었으므로 정정목의심판 등은 통해 재심이 취해질 수 있는 것은 고려하면, 진해 위해 다수의견이 타당하다.

## (5) 사안

따라서 목의심판에 의한 심판부결로 재법원 계속 중 재심판결이 항재될 경우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451조 (항 8)의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3. 대법원의 판결대상

취지는 위의 경우에 ~~정정~~ 정정 전 발명을 기점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한다.

## 4. 심판의 해명







## [문제-2]

## I. 서문(1)

## 1. 권리범위 막인실패 의미 및 취지 - 제135조

불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특허권의 객체라는 범위에  
 막인대상발명이 포함되는지 막이하기 위해 치명하는  
 것이다.

## 2. 특허권 권리범위 막인실패에의 지리 대 지리의 정부

## (1) 원의 취지.

등록된 막인대상발명을 기점으로 권리범위 막인실패를  
 치명하는 것은, 무효실패 의미인 특허권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되는 부당행위이다.

## (2) 예외 취지.

다만, 막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나 제98조의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등록된 발명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어서, 허용된다.

## (3) 사안

① 본 사안에서 막인대상발명은  $A+B+C$  등록된  
 발명이다.

② 따라서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  $A+B$ 과  
2의 발명  $A+B+C$ 가 이용관계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 3. 이용관계 해당 여부.

## (1) 이용관계 범위 취지



- ① 이명관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 특허발명이 신 특허 발명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추가하고, ② 특 특허발명의 신 특허발명의 모지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③ 또한 후 특허발명에 신 특허발명이 일체적으로 유지 하여야 한다.
- ④ 동일한 발명은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균등한 발명은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2) 사안.

- ① 2문 목의 선 발명  $A+B$ 와 균등한  $A+B'$  발명에  $C$ 를 추가하였다.
- ②  ~~$A$~~   $C$ 의 추가로 일체성이 상실된다는 특 변한 사안이 없는 한, 이명관계에 해당한다.

## 4. 선물의 해석.

목의 ~~지극히~~ 권리범위 확인 실험에서 확인대상발명인  $A+B+C$ 가 등록된 경우지만, 이명관계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명이 있는 지발명은 차지이다.

## II. 실문(2)

### 1. 문제점 - 권리범위 확인 실험 실험법.

권리범위 확인 실험은 특허자의 특 발명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를 확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험 역시 진발명 원리를 이유로 권리범위를 복합할 수

없음을 알아볼다.

## 2. 진보성 위반의 하자 주장 거부 - 新例

### (1)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목적 및 기능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신속·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무효심판 기능 약화 문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하명, 인정한 사유에서 특허가 무효임을 판단하는 무효심판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 (3) 권리범위 부재 범위 확장 불가

특허가 신규성에 위반되는 경우 권리범위가 부재된다는 법리는, 진보성이 위반되는 경우까지 확장할 수 없다.

### (4) 결론

따라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가 진보성 위반임을 주장할 수 없고, 심판원도 이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 3. 새로운 해명

① ~~2차~~ <sup>1차</sup> 특허 청구항 A+B의 진보성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sup>한 것에 대해</sup> ~~특허~~ <sup>심판원</sup> 심리·판단할 수 ~~없다~~ <sup>있다</sup>.

② 따라서 심판원은 확인대상항목 A+B+C가 청구항 명 A+B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이유로, 인용심판 만 것이다.

가속심판 제도



지식재산법률지원센터

1544-3383

patent.willbes.net



[문제-3]

## I. 설문(1).

1. 일사부재리의 의의 불확시 - 제16조2.

특정된 <sup>실질</sup>불안~~불안~~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동일 사실·중요  
중점에 의해 동일한 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실질의  
모순·지속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일사부재리 요건

i) 불안 불안이 발생된 것, ii) 동일 실정, iii) 동일 사실  
및 동일 중점인 것을 말한다.

3. 동일 중점의 의미. - 제16조1(1) 동일의 의미.

동일한 중점과 같은 문안으로 내용이 동일한 중점 뿐만  
아니라, 발생된 실정을 현혹한 만큼 유력하게 양은  
중점이 복가된 경우도 포함한다.

(2) 구체적 판단 방법

실질적 계속 여부가 있든지 여부는 가정으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II. 설문(2).

1. 문제점.

2의 부에 대함 실정이 발생되었고, 동일한 문안에  
대해 동일한 실정에 대함 사실을 이유로 청구한 바,

선행문헌의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종기에 해당하여  
~~한정~~ 일사불재의 위반 각하될지 해야 함을 알아본다.

## 2. 동일종기인지 여부.

### (1)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 - 선행문헌

동일한 선행 문헌에 대해 해석받은 달리하는 경우  
 이는 종기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 동일종기에  
 해당한다.

### (2) 사안.

심판원이 선행문헌의 내용 중 B'에 대한 해석을  
 달한다는 사안만으로는 동일종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 여전히 동일종기이다.

## 3. 선행의 해석

경우 i) 선행 무효심판의 인용심지 약재 후, ii) 동일한  
 무효심판은, ~~iii) 동일한 사안이 진보성 위반을 이유로~~  
 iv) 동일한 종기인 선행문헌 1은 기결로 제기하였으므로  
 일사불재의 위반으로 각하되어야 하는 바,  
 심판원의 인용심지는 부당하다.

## III. 결론(3).

### 1. 문제점

선행 무효심지 약재 후, 동일한 무효심판은, 동일사안의  
 진보성을 이유로 제기하였는바, 사안의 경우에서 동일



중기에 해당하지가 문제된다.

## 2. 동일 중기 여부.

### (1) 구체적인 판단방법 - 3단계

#### 1) 실질적 저촉 존재

전 심판에서 제정한 중기에 유력하지 아니한 중기를 부가하는 경우 등나 같이, 실질적인 저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일중기에 해당한다.

#### 2) 실질적 저촉 부존재

다만, 전 심판에서 제정한 중기를 전 심판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중기를 이행하는 경우 등, 실질적인 저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 중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사안

① 특허법령 X가 선행문헌 2말므로 진보성이 부재하므로, 선행문헌 그를 특허된 신기술 변형만으로도 유력한 중기에 해당한다.

② 또한 선행문헌 2이 선행문헌 1의 '추가적. 분할적인 결합'되어 진보성이 부재하다는 것, 신기술으로 저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③ 따라서 동일 중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선행의 해결

①이 제정한 중기가 동일중기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



복제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따라서 심판원이 <sup>대체</sup> 주의 묵시적~~판~~판에 진보성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인용심판 할 것을 카당하다.

#### IV. 설문(4).

5

##### 1. 문제점

전혀 다른 선행문헌을 제출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중심점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부패의 위반의 사유가  
없음을 인정, 법원은 불안전판하여 가각심판 해야  
함을 논한다.

##### 2. 청구의 적격

(1) 전혀 다른 선행문헌 제출한 경우. - 제1제.

선행심판에서 제출된 선행문헌과 전혀 다른 선행  
문헌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선행문헌이 확장된  
심판은 변복한 지극히 유려한 중개인지 여부를  
판지리 않고, 올바른 중심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안.

따라서 주이 선행문헌 2만 제출한 경우, 중심점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부패의 위반이 아니다.

~~이제~~ 결국. 묵시적~~판~~ 청구는 ~~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판하다.

##### 3. 불안전판



- ① 심판원을 출석반영 X가 선행반영 23부터 결석반영  
부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 ② 국의 결석 반정을 이유로 한 무효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4. 설문지 채우기

살얼음이 기각심판을 했 것이다.

V. 생물(5)

1. 목적/질

새로운 무사유가 국기될 경우 그 자체로 중의사상이  
아니고 <sup>아름답고</sup> 인사를 배려 율하는 ~~이치~~, 또한 판단 시 여러에  
참고된 사상이 중요한 사상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다.

2. 청구원 적분 결과

(1) 数列.

확립된 실재에서 주장한 문제사유에 다른 문제사유를  
추가한 경우, 그 자체로 증인 사실이 아니어서,  
형사불가치 위반이 아니다.

(2) 사안.

큰돈 전보신 복귀 및 영대시 기세복비를 이유로  
무연실종을 처리하였는 바, 실제로 ~~복귀~~ 무연사유인  
기세복비가 추가되어, 인사복래리 유입이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는 적법하다.

### 3. 발명 판단 관련

#### (1) 신규성

선행 실용에서 제기된 문제사유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영역~~ 공기로 다른 실용은 할 수 없는데, 이때 공기가 동일한지는 특정 실용을 반복한 만큼 유려한 공기에 해당하에게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2) 사용

특정 실용을 실용을 추가하여, 공기로 제정되었지만 진보성이 불 복귀된다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 될 바, 유려한 공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용은 진보성에 대해서는 실행 실용과 동일한 각각 실용을 해야 한다.

### 4. 실용의 해결

특정 실용실용은 적법한 청구이고, 실용은 실용사유가 모두 없다고 판단할 바, 실용은 각각 실용 할 것이다.

[결]

[문제-4]

I. 실용(1)



1. 무효심판 이유 및 취지 - 특13332

복식특허 소명은 위해, 원재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심판 취지가 가능하다.

2. 무효심판 취지의 취지 - 특133321항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취지의 취지는 없다.

## 3. 심사권과 2의 취지인 취지 여부

## (1) 중재 취지

중재기는 심사권자의 경우 특허법규에 따라 취지  
대항을 받은 영리가 없다, 재심사도 심사권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권자의 취지인  
취지는 부합했다.

## (2) 전항 취지

1) 특13332 1항의 이해관계인인 이유.

특13332 1항의 이해관계인인이란, 권리의 존속으로 인해  
법정상 불이익을 받은 관계에 있어, 특허권 유무  
여부에 직접적이지. 재심사도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특13332 2항의 취지 - 심사권자의 경우.

그러므로, 특허권자에게 대항을 받은 영리가 없다는 이유  
만으로, 심사자가 이해관계인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1) 계약 목적의 독립성 판단.

무엇을해서 박제된 것이 특허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보지말, 계약이 목적이든 여부는 이따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2) ~~계약 목적~~ <sup>실시 불가능</sup> 실시.

특허권자는 실시권을 선택한 경우. 실시가 제발되고,  
실시권자는 제3자의 실시를 막을 수도 있으므로,  
특허가 목적이 되었을 때부터.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3) 발원 거부

1) 예외 사유 2가지.

실시권자에게 계약이 1)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거나, 2) 계약  
자체에 별도의 목적이든 존재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있어야 발원 가능하다

2) 기 지급 실시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실시자가 이미  
지급한 실시권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한 의무가 없다.

3) 미 지급 실시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특허가 목적이 되기 전

※ 여기에 기재한 사항은 채점하지 않으나,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능함으로 미지급한 실시권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수 있다.



### 3. 성문의 해결

- ① 2의 묵음심판에서 인용심판이 박정환의 특허가 소급적으로  
묵음이 되었더라도,
- ② 甲과 2의 통상실시권 사용계약에 원시적 이행 또는  
사유나 계약의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양립하고,
- ③ 2는 甲에게 기지중 실시권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하여백]

2는 ~~실패~~이요!

(1:55:39)



[B제-1]

## I. 실문(1)

## 1. 무효심판 의의·처리 - 제133조

공약상 하과 있는 특허권의 소멸을 구하는 제로이다.

## 2. 정정심판 의의·처리 - 제136조

특허권과 보증을 위해 등록 후 특허권의 내용을  
정정하는 심판이다.

## 3. 특허 계속 기속 - 제136조 2항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동안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① 정정심판이  
먼저 청구되거나, ② 무효심판 심결 취소소송  
계속 중 정정심판 청구는 가능하다.

## 4. 심판원의 바람직한 처리방법

## (1) 소합론 - 제133조 3항, 136조 10항

무효심판과 정정심판 모두 심결이 확정되면  
소합론이 발생한다.

## (2) 대합론

대합론 제제는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  
원에 동시에 계속된 경우, 정정심판을 먼저  
결리항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결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정  
심결 확정 권이라면 정정 권 명세서나 무효

심판의 판단대상이 될 뿐이라고 하였다.

## II. 실례(2)

1. 정정심판 청구 가능 기간 - 제 136조 2항 1호 전서  
무효심판 심결 취소 조항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법원이 정정심판 결과를 가져야 하는지 - 제136조  
대항권 제136조는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조항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 특허청가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정정 후 특허발명이 대해 부통  
사유를 판단하여 잘라고 요청한 경우, 정정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분쟁 리스크 여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정심판 결과를 가져와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반드시 요청이  
있다고 하여 정정심판 결과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II. 실례(3)

1. 정정심결의 조항 - 제 136조 10항  
정정심결이 확정리유를 정정 후 명세서  
장들 사이에 따라 정정증서 등이 된 것으로  
본다.

## 2. 특허법원 심판 대상

(1) 종래 선행예

종래 선행예 선행예들은 경쟁 심결 확정 시  
 경쟁 후 명세서로 무효소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경쟁항의예 방문

경쟁항의예 선행예 방문에서는 경쟁심결 확정 시  
 특허법원이 계속 중인 무효심판 심판 대상은  
 경쟁 후 명세서라고 하였다.

## 3. 결론

136조 1항에 따라 경쟁심결 확정 시 심판가  
 입으로 특허법원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경쟁 후  
 명세서를 기준으로 무효소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IV. 결론(4)

## 1. 문제점

특허법은 원종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바 경쟁 전  
 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재심사유  
 4항 1항 8항에 해당하느니 문제된다.

2. 종래 선행예

종래 선행예 선행예는 경쟁 전 항구항을 기준으로



한 판결에 대해 1항 8호 제1항에 대해  
하였다.

### 3. 전원합의제 다수의견 채택

전원합의제 다수의견 채택은 특칙은 판결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 대상일 뿐이며,  
정정결정 확정은 특칙의 내용이 확정적.  
2항적은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분쟁적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4항 1항 8호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4. 전원합의제 별개의견 채택

전원합의제 별개의견은 136조 10항 명문의 규정,  
특칙과 별개의견 보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1항을 아예 인용하여야 한다고 했다.

### 5. 정도

대법원은 법률상인 바, 무효심판 심판되는 것이  
대법원 계속 중 정정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판정 전 항심을 가한다는 판단한 것이  
인사소송법 4항 1항 8호 3항의 제1항에  
준거한다고 한 것이다.

## V. 심판(5)

1. 무효심결 2항 - 제 137조 3항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판이 학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정정심판 계속 중 무효심결 학정(1) 청구항 전부 무효로 된 경우

해례는 정정심판이 특허 심판부에 계속 중

무효심결이 학정되어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심판의 대상이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정정심판은 부작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다.

(2) 청구항 일부만 무효로 된 경우

해례는 일부 청구항에 대해 무효심결이

학정된 경우 무효 사유가 없는 나머지 청구항

까지 소멸하여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는 정정심판이 부작법

하에 외치 않는다고 하였다.

3. 결론(1) 전체 청구항이 무효로 된 경우

심판대상이 없으므로 부작법 각하심결 하여야 한다.

(2) 일부 청구항만 무효로 된 경우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 심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결]



[문제-2]

I. 실문(1)

1. 권리범위 확인 심판 의미·취지 - 조 135조 항  
 분쟁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특허권과  
 같은 권능을 지닌 것은 각자의 특허발명 보호방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권리 대 권리 객체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가부

(1) 취지

제정된 취지는 ① 전 특허권자가 후 특허권자를  
 상대로 객체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하는 것은  
 무효심판이 아닌 절차에서 등록 특허권의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 하등할 수 없으나, ② 예외  
 적으로 전 특허발명과 후 특허발명이 이종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하등할 수 있다.

후특허권의 권리를 부정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2) 다만

시안에서 전 특허권자 A가 후 특허권의 권리  
 상대로 후 특허발명 A+B'+C를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객체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양 발명이 이종관계에 해당하더라도 권리범위  
 적법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검토한다.





3. 이용관계 여부 - 적극(1) 판단 방법 - 예제

재발견 예제는 전 특허발명이 ① 새로운 구성을  
 추가하여 ② 전 특허발명의 효과를 그대로 포함하고  
 ③ 전 특허발명이 후 특허발명에서 일체성을 유지  
 하고 있다면 이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전특허발명과 ④ 동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사안

~~4항에서 결론 전도~~

1) 항등여부

$A+B$ 와  $A+B'$ 는 동등하다.

2) 이용 여부

Z의 특허발명은  $A+B'$ 에 C를 추가하고,  $A+B$ 의  
 효과를 그대로 포함 하고 있으며,  $A+B'$ 가  
 C가 추가됨에 따라 일체성이 상실된다는  
 의견은 없으므로 이용관계에 해당한다.

4. 결론

특허발명과 핵심대상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무의 권리 재 권리 적극적 혹은 권리행)  
 핵심 실행은 "적당"하다.

## Ⅱ. 실용 (2)

### 1. 권보성 의미. 취지 - 제 293 조항

기술발전 속도를 기어, 공시 기술로부터 통상적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은 등록 받을 수 없다.

### 2. 권리방기 확인 심판에서 특허발명 권보성 위반 주장 거부

#### (1) 예제 - 소극

##### 1) 권리방기 확인 심판 취지

권리방기 확인 심판은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권리방기 여부를 판단하여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취지가 있다.

##### 2) 무효심판 이에서 무효사유 주장

※ 특허법은 무효심판 절차를 통해 하라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다룰 수 있게 한 바, 무효심판이 아닌 절차에서 특허권의 무효사유를 주장하여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 3) 무효심판 약화

또한, 무효심판 이외의 절차인 권리방기 확인 심판에서 권보성 여부가리 판단할 수 있다는 해문 무효심판의 기능이나 목적이 약화된 우려가 있다.



## 4) 동일성 관련 경우 확대 불가

동일성이나 확대된 선출된 국의 위반 등 동일성이  
문제되는 모든 국의 경우 권리방식이 부정  
된다고 하사 이를 권보성의 정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

## 5) 결론

따라서, 권리방식이 확인될 때 권리방식이 특허발명의  
권보성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2) 사안

사안에서 같은 권리방식이 확인 될 때 특허발명의  
권보성 위반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허용될 수 있다.

## 3. 심판부 심결 - 인용심결

그의 주장은 권리방식이 확인될 때 판단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이 이질관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인용심결"이 예상된다.

[결론]

다 장상식입니다

[문제-3]

I. 실문(1)

1. 알사복재리 의리·취리 - 제 163호

삼판 정계를 고려하였을 때, 정결 항목 ① ②  
사정에 대하여 누구리, 동월사원, 동월중기  
의하여 다시 삼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알사복재리 의견

① 누구리, ② 동월사원, ③ 동월중기, ④ 동월 삼판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3. 동월 중기의 의미

(1) 취체

대법원 취체는 알사복재리 의리의 동월 중기는  
선형 실결에서 권리가 된 중기나 동일한 중기  
뿐만 아니라, 선형 실결을 반복할 수 없는  
점으로 유려한 중기가 부가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2) 다만

사안에서 선형실결의 권리가 된 선형문헌 1과  
동일하거나, 선형실결을 반복할 수 없는  
점점으로 유려하지 않은 중기가 선형문헌 1이  
부가된 경우로 동월 중기에 해당한다.



II. 실용(2)1. 동일 중의 해석만 구분한 경우 - 예제

재판관 예제는 동일한 중의에 대하여 해석만을  
구분하여 진행 실결과 다른 실결과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사안(1) 누드리

짧은 일사부재리 즉각적 행위에 해당한다.

(2) 동일 사설

특시발명 X의 권보성 부정 여부는 권 심판에서  
판단된 사설과 동일하다.

(3) 동일 중

선행발명 1은 권 심판의 결과가 된 중의는 동일  
중의에 해당한다.

(4) 동일 심판

권 심판과 즉심판 모두 부통심판으로 동일하다.

(5) 결론

즉심판은 일사부재리 보장을 모두 만족하고, 법원은  
동일한 중의에 대해 해석만을 구분하여 권  
심판과 배리되는 실결과 할 수 없으므로  
심판원의 실결은 부당하다.



## Ⅱ. 실용(가)

## 1. 새로운 중계가 추가된 경우 - 위례

## (1) 적법 여부

대부분 위례는 전 심판에서 기록된 중계와 동일한 중계에 새로운 중계를 추가하여 동일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자체로 원사부제리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 (2) 불만 판단

추가된 중계가 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려한 중계가 아닌 경우에는 전 심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2. 상항 1 타당 여부 - 타당

## (1) 누각론리

주요 원사부제리 취지에 밝히 해당한다.

## (2) 동일 사실

전 심판과 즉 심판 모두 권보성 위반이 인정된다.

## (3) 동일 심판

전 심판과 즉 심판 모두 무효심판이다.

## (4) 동일 중계

전행문헌 2안은 전행문헌 1과 다른 중계에 해당하므로 전 심결과 달리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 (5) 결론 - 타당



때문에 선행문헌 2개는 권보성 부정 티가  
인용실효 가능하여 타당하다.

### 3. 상황2 타당여부 - 타당

#### (1) 누출리

제1권 일대복제리 누출리 항의에 해당한다.

#### (2) 동일 사실 · 동일 실험

권·복 실험은 모두 무효실험에서 권보성 여부가  
동일 하다.

#### (3) 동일 증거

선행문헌 2개 선행문헌 1이 복제리 · 보충증으로  
부각된 것이 복제리이면 선행문헌 2와 선행문헌 1은  
동일 증거로 할 수 있다.

#### (4) 결론

때문에 권 실험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선행된 실험도 타당하다.

## IV. 결론 (4)

④

### 1. 권허 다른 증거 개조 - 취재

제1권 취재는 복 실험에서 권허 다른 증거만을  
제출한 경우 일대복제리 권허에 반하지  
않으며, 그러한 증거로 권 실험과 동일한  
실험을 하는 경우로 마찬가지로 판단 한다.



## 2. 시안

## (1) 누구 권리

주은 일대복제권 주권자에게 배정한다.

## (2) 동일시원 · 동일 출판

권·속 출판 목록 무효출판에서 권보성 위반 여부가 묻게 된다.

## (3) 동일 중개

신행출원1과 신행출원2는 전혀 다른 중개로 동일 중개가 아니다.

## (4) 예상 심판

심판원은 X가 신행출원2로부터 권보성이 부정되리  
않았으면 "가각 심판" 할 것이다.

## V. 원문(ㄷ)

## 1. 권보성 부정 판정

## (1) 누구 권리

주은 원대복제권 주권자에게 배정한다.

## (2) 동일시원 · 동일 출판

권·속 출판 목록 무효출판에서 권보성 위반 여부가  
묻게 된다.

## (3) 동일 중개

주은 전체 출판에서 기록된 중개와 다른 중개인





상행문헌 2는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동일증거가 아니다.

#### (4) 결론

권보성이 부쟁리인 않는다는 판단은 권심원이  
심결과 동일하므로 "기각심결"할 것이다.

권심결과 배치되지 않고, 상행문헌 2는 동일증거로 아니므로

#### 2. 기재보비 관련

기재보비는 권보성 위반 여부와 다른 사실에 해당  
하므로 일대보리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심판장은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각심결"할 것이다.

[문]

[문제-4]

#### I. 질문 (1)

##### 1. 무효심판의 취지 - 조 1332

공약상 하와 있는 특허권을 무효로 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2. 무효심판 청구인 자격 - 조 1333 1항

이해관계인 또는 권리자인 무효심판 청구인 자격을  
가진다.

##### 3. 심사청구 무효심판 청구인 자격 여부 - 작주

(1) 문제점



실시권자가 1차로 1항의 이해관계인이 해당하여  
무효일뿐 창건인 책적이 있든지 관계없다.

## (2) 중개 회사제

중개 회사제는 특허권과 더불어 대항 받거나 받들  
영역이 있는자인 이해관계인이 해당한다는 하며,  
실시권자는 이해관계인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3) 전항 회사제

### 1) 이해관계인 의미

1차로 1항 이해관계인이란 특허권의 존속으로  
영리상 이익을 받을 영역이 있는 자를  
뜻하며, 대항 받을 영역이 없다고 하며 이해  
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2) 실시권 계약

실시권자는 실시권을 설정 받은 자로 하여금 실시권을  
부담하는 등 계약이 있어 특허권의 존속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 3) 부행하다 관행 복가

관한 실시권을 설정 받았다는 것만으로 부행함을  
하더라도 관행할 수는 없다.

### 4) 결론

따라서 실시권자로 1차로 1항 이해관계인이  
해당하여 무효일뿐 창건인 책적을 가진다.

※ 추가작성의 경우 [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4. 40만

① 2은 통상설사치라는 수식에 증명책의 3.4를  
참조한 부록에 있으며, ② 설사치들 설정방법이란  
해설이라 2 4에 부록참치를 하원라고 할 수  
있고, ③ 부록참치가 원원라고 해설은 수세에  
따라진 수판 청구 전 부록참치는 원원이 해설은,  
④ 2의 부록참치는 적당하다.  
2은 1차 1항 이해관계인이므로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II. 2012

1.  $\frac{1}{2} \times \frac{1}{2} = \frac{1}{4}$  - 1/4 1332 3항

무늬살결이 활짝핀 89 그 특이한데 처음부터  
완전히 지어 보라.

~~2. 10월 7일 21점 일대일~~

## 2. 실내용 반천 창구 기법

(1) 排列

1)  $\frac{2}{3} \times \frac{4}{5}$

북대삼육이 학생들의 특이점이 생기는 소멸이나  
실시계약과 함께 소멸한다 할 수 있다.

※ 여기에 기재한 사항은 채점하지 않으나,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 2) 이행불능 여부

갑이 일정한 특수채라는 채권(채권)을 청산할 수 있고, 이 채권은 특수채이므로 중기 무한도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특수채의~~ 특수채권이 형성된 때부터 채권계약이 이행불능된 것이다.

## 3) 기 지급 채권 반환 청구

그러나 채권자는 특수채이 유체하게 중기 중 지급한 채권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청구할 수 없다.

## 4) 미지급 채권 청구

경한 특수채라는 특수채 유체하게 중기 중 미지급 채권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2) 소인

은 별도의 이행불능 사유가 없고, 원상 복구 사유가 채권자에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계약은~~ 특수채를 형성사정부터 이행불능된 것이므로, 甲에게 특수채이 유체하게 중기 중 기 지급 채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할 수 없다.

[이 하 예시]

수고하셨습니다